

## 4·11 자치단체장 보선 전남 입후보자

## 김진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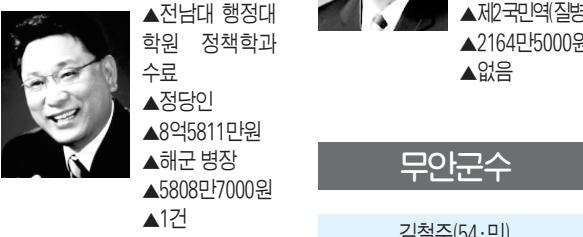
김진일(52·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순천시, 강진군, 무안군 자치단체장 보궐 선거 입후보자들의 신상정보를 이름·나이·정당·학력·현직업·재산·병역·납세 실적·전과 순으로 소개한다. ※소속정당 표기 민=민주통합당, 통=통합진보당, 정=정당민주당 무=무소속

## 순천시장

허정민(55·민)



▲전남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교수

▲정당인

▲8억5811만원

▲육군 병장

▲5808만7000원

▲1건

이수근(44·통)



▲고려대 생물학과

▲정당인

▲2억4197만원

▲육군 병장

▲610만5000원

▲없음

박광호(50·무)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순천대 겸임교수

▲1억7200만원

▲육군 병장

▲20만9000원

▲없음

조충훈(58·무)



▲중앙대 행정대학원 도시환경행정

▲정당인

▲2억2172만원

▲육군 병장

▲3938만9000원

▲1건

이은(59·무)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공학 박사)

▲정당인

▲8억9085만원

▲육군 소위

▲2746만6000원

▲없음

김상열(59·무)



▲전당대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무인항토고구마

▲클러스터 사업단 대표

▲4억5110만원

▲소집연제(수험)

▲1669만5000원

▲1건

김호선(48·통)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무인항토고구마

▲스카이타워

▲725만9000원

▲없음

김호선(48·통)

## “여수박람회, 남해안 발전 교두보 될 것”

## D-50 정부 최종점검…기네스 파이프오르간 시연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 개막 50일을 앞두고 정부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등 막바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스카이타워 파이프오르간이 처음으로 여수 앞바다에 올려 폴렸다.

지난 23일 박람회장에서 열린 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시장 공정률(97%), 범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 교통·숙박대책, 폐막 후 박람회 시설물 사후 활용 방안 등을 최종 점검했다.

김 총리는 “해양과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다뤄 감동적이고 차별적인 여수세계박람회가 될 것”이라면서 “설계 단계부터 사후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만큼,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여수가 남해안 발전에 큰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람회 불 조성을 위해 지역축제, 각종 행사와 연계해 박람회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입장권을 많이 예매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과 관계자, 조직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카이타워 파이프오르간 시연회도 열렸다.

오르가ニ스트 김성희·임단비씨가 가곡 ‘남촌’과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를 연주하자 스카이타워 외벽에 설치된 파이프오르간에서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직구조물인 스카이타워(73m)는 폐사일로(시멘트저장고)를 재활용해 만들어졌고, 파이프오르간은 최고 6km까지 옮겨 퍼질 수 있는 최대 139dB의 소리를 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스카이타워 내부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만들어진 물을 직접 마셔보고, 60m 높이의 스카이타워 전망대에 올라 주변 풍경을 둘러보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은 “개막식이 기다려진다. 많은 관광객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여수가 해양레포츠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남도 박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지사, 권도업 국토해양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김총석 여수시장, 강동석 조직위원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23일 여수시 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둘러본 뒤 주무대인 빅오(Big-O)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금호족 도시계획변경 신청하면 투명하게 처리”

광주시, 터미널 용도변경 논란 입장 밝혀

광주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천터미널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25일, 최근 지역 최대 이슈로 등장한 광천터미널 부지 일부 제작 및 용도변경 신청 논란과 관련해 지난 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발표한 ‘광천터미널 용도변경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금호족이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세계백화점 분리 매각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오다 지난해 9월 처

음으로 광주시에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 부근) 교통이 혼잡한데다, 백화점 1층 터미널편의시설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될 경우 추가로 발생할 교통체증에 대한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백화점 분리반대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금호 측이 또다시 도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터미널 층소에 대한 적정성과 교통 대책 등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대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기자 redplane@

## ‘최루탄’ 김선동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국회의장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0년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성희 의원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을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두 의원과 보좌진은 2011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두 의원은 서로 맞았으며 맞고소했다.

/연합뉴스

## 강기정·김성희 의원 불구속 기소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오늘 개막

## 北 ‘광명성 3호’ 입장 조율 주목

핵테러 방지를 통해 세계 60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평화서밋(Summit)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다.

27일까지 이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 태우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53개국 국가 정상 또는 정상급 수석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다.

전세계 190여개국 정상 또는 정상급 인사가 참

석하는 유엔 총회가 매년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지만, 단일 국가가 개최하는 외교 이벤트에 이처럼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기간에는 공식 의제외에도 북한의 비핵화 및 로켓 발사 문제가 장외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이날 새벽 방한 직후 첫번째 일정으로 10여분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근무중인 미군 장병들에게 “여러분은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자유와 번영의 경지에서 남북한 만큼 분명하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F1 코리아 28일 서울서 그랜드 론칭쇼

을 가을에 열리는 ‘F1 코리아그랑프리(10월 12일~14일)’의 티켓과 운영방향 등을 공개하는 ‘그랜드 론칭쇼’가 오는 28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그랜드 론칭쇼에서는 F1 조직위원회와 여행사 관계자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주간 계획과 운영방향 등이 소개되고 티켓 오픈 행사,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F1 티켓은 지난해 5개(R·S·A·B·C)였던 등급을 3개 등급(R·S·A)으로 단순화시켰고, ‘옥션 티켓’을 통해 구매절차도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한편 F1 조직위는 오는 28~30일 50% 깎아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옥션 티켓(ticket.auction.co.kr)을 통한 온라인 구매와 론칭행사장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또 조기 구매 할인율은 4월 30일까지 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ABC협회 인증



##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증(물 흙),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관절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고관절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고관절적인 치료가 조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짐증증에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혈생의 경우 기력이 나빠져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 인체면역 강화로

##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리면서 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다. 결국 축농증으로 전락해지는 2004 가지의 약재가 기민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